

회원 경영





04



12



14



06



07



11



2018 OCTOBER
vol.15

GREETING

04 효원경영 15호 발간 축하 | 김종관

NEWS BRIEF

06 주요 뉴스 | 교수 소식 | 장학 | 대학 행사 | 학생 수상

08 국제 관련 | MBA 경영대학원 | AMP 최고경영자과정 | 동문회

SPECIAL ISSUE

12 학생회 | 교복데이

14 특집 | 교수 · 학생 연계 팀 베이스 융합교육 · 연구 해외 현지조사

COLUMN

16 교수 칼럼 | 김창호, 이철용

18 명사인터뷰 | 패션그룹형지 최병오 회장

22 동문칼럼 | 현대건설기계 공기영 대표이사

24 취업수기 | 김기한 IBK 기업은행

26 학생칼럼 | 박준기 부산교통공사

DEVELOPMENT FUND

28 경영대학 발전기금

EDITOR'S COMMENTS

34 편집후기

발행일 2018년 10월 30일

편집원 강민재, 김나령, 김윤지

디자인 부산대학교출판부 051.510.1935

발행처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전 화 051. 510. 1854

편발행 학장 김종관

팩 스 051. 581. 3144

편집장 조교 이수지

<http://biz.pusan.ac.kr>

대학다운 대학,

진정한

학문공동체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은 더위에 대한 저의 과거 기억을 송두리째 지워버렸습니다. 학기가 개강 되면서, 금정산 뒷자락에 태연히 자리 잡은 푸른 하늘은 가을의 자태에 낮이 나간 듯, 그저 평화롭게 캠퍼스만 내려다봅니다.

사랑하는 효원경영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년 2학기가 되면, 우리 대학의 캠퍼스에도 풍요로운 인간미가 넘쳐납니다.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행사 및 동아리 행사들이 앞 다투어 개최되고, 학업에만 몰두해오던 학생들의 가슴에는 가을의 감성이 봄바람처럼 옷깃을 파고듭니다. 설레이는 캠퍼스의 가을을 처음 맞이하는 신입생들이나 이미 가을의 감성에 식상한 선배들의 발길은 각각 다른 곳을 향하겠지만, 그저 어디로 향하든 저의 시선에는 아름답고 부럽게만 느껴집니다.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장

김종관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른 채, 오로지 입시에만 매달려 대학이란 열차에 탑승한 학생들은 저마다 새로운 인생을 그려보고 스토리를 써 봅니다. 대학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곳으로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학문과 축제는 함께 즐기고, 진리와 자유를 함께 누리며, 삶의 의미도 인생의 목적도 같이 고민해 보는 그런 철학적 공간이 대학이기도 합니다. 대학은 과감하게 비판하고 겸허하게 반성하는 자기 수양의 터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대학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한 직업훈련원이 되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개인주의의 늪에 빠져들고 있으며, 미래를 위한 비판적 사고와 자유를 향한 학문 공동체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캠퍼스라는 열차 속에서 꿈도 꾸고, 미래도 설계하며 함께 사는 법과 지혜를 배워나가야 합니다. 서로 토론하고 때로는 비판하기도 하지만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 내고, 함께 이것을 달성해 나가는 현명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플라톤이 말한 '철인왕'을 양성해 나갈 수 있는 대학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학생들이 미래의 사회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대학에서는 그런 교육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학문 공동체」 진리와 자유가 기본정신으로 살아 숨쉬는 그런 대학이 그리워집니다.

최근 한국의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남북 평화의 문제, 미·중 중심의 무역전쟁 속에서의 글로벌 관계,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준비가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어느 것 한 가지도 만만한 게 없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러한 환경에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학습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학습내용을 실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현상을 직시하는 안목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대비하는 자세를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북문제의 진실과 현상을 직시하고, 미래의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태도를 함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입으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대학이 변하고 교수들이 변해서 학생들이 미래를 슬기롭게 살아 나갈 수 있도록 교육시켜 나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경영대학을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하드웨어의 정비입니다. 이번 겨울방학 기간동안 1982년 신축된 경영관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대학원 유치로 인한 강의시설 개선 작업과 연계해서 교수 연구실도 쾌적하게 정비할 것입니다. 경영관 입구의 조경도 새롭게 개선하여 등교하는 학생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졸업식 때 친지들과 기념사진을 즐겁게 찍을 수 있는 상징물도 조성할 것입니다. 저는 임기동안 아름다운 경영대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혁신의 일환으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갈 것입니다. 전공 필수과목 수를 줄이고 학생들이 미래에 적

극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과목들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학생들의 진로와 연계되는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전문 트랙을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정 혁신에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남북 평화의 시대, 미·중 강대국들과 대등한 교역관계를 열어 나갈 수 있는 시대를 대비하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하여 더욱 더 교육에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대학 내에 '학생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유학생들의 미래와 현실도 정확하게 직시하여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우수 인재들을 중심으로 경영대학 내 학생지원센터 소속으로 Honour's club과 창업, 취업 동아리를 설립하여 학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효원 경영가족 여러분!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고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우리 경영대학에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대학의 모든 관계자들도 더욱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대학이 「대학다운 대학」, 「진정한 학문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나갑시다.

효원경영 가족 여러분들의 무궁한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영대학(원)장

김 종 관

Main News

주요뉴스



2018년도 제 1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경영대학(원)장 협의회 개최

2018년 4월 27일, 28일 양 일에 걸쳐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제 1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경영대학(원)장 협의회 개최되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경영대학(원)장 27개 회원교 학(원)장을 대상으로 협의회 회장교인 부산대학교에서 행사를 주관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18년도 경영대학(원)이 당면한 공통적인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 및 건설적인 의견 교환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이 마련되었다. 향후 지속적으로 전국 국·공립대학교 회원 대학 간에 상호 교류와 국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대학 발전을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Professor News

교수소식



송태호 교수, 젊은 교육자상 수상

우수한 교원을 선발하여 포상하는 2018년 부산대학교 교육자상에서 경영대학 경영학과 송태호 교수는 젊은 교육자상을 수상하였다. 젊은 교육자상은 경영대, 경제통상대, 약학대, 생활환경대, 예술대 소속 교원 중 본교 임용 후 4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했다. 강의내용이 질적으로 뛰어나고 창의적인 교육방법 및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강의의 질적 수준을 높인 공로가 인정되는 교원, 학생지도에 남다른 열성을 지닌 교원 등의 기준으로 수상하였다. 이 수상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책무성 고양 및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Scholarship

장학



2018학년도 1학기 장학금

2018학년도 1학기 등록금재원 장학생으로 수업료 I + 수업료 II, 수업료 II, 수업료 II 3/4, 수업료 II 1/2, 수업료 II 1/4 지원으로 나누었는데, 2018학년도 1학기 장학생 총 152명이 지원 받았고, 두을 장학재단 1명 228만원,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700만원 2명, 500만원 1명, 연당장학회 200만원 1명, 협성문화재단 2명 각 218만원, 농어촌희망재단 1명 50만원 등 총 8명이 외부장학금 지원을 받았다. 학업에 열심히 매진한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은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University Events

대학행사



글로벌 엔터프라이저십 (I) 특강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반부터 75분간 글로벌 엔터프라이저십(I) 특강이 1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진행되었다. 본 특강은 성공한 각계 인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통해 수강생들의 성취동기를 높이고 사회적 롤모델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강의를 통해 외부 인사뿐 아니라 경영대 교수와 학생 간의 접촉 기회를 확장하여 진로목표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학기는 김종경 직원, 김종관 학장, 고영삼 교수, 임명한 교수, 안세룡 박사, 김태혁 교수, 송태호 교수, 정재만 교수, 김지완 회장, 양일상 회장, 최병오 회장 등이 강연에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한 학기 동안 수강한 학우 여러분께 배움의 시각을 높이는 값진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

경영관 B동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경영관 B동의 화장실 환경 개선 공사가 지난 6월 20일부터 다가오는 10월 17일 사이에 진행된다. 공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화장실 내부 타일 교체 및 천장재 교체, 화장실 위생 배관 및 위생기구, 환기시설 설치, 분전반 내부 교체, 전등/전열 설비 교체, 또 기존 천정 재인 석면 텍스를 철거하는 석면해체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영관 화장실 개선 건의는 A동 화장실 공사 이전부터 항상 다수 존재했고 이를 공약으로 내건 학생회장 후보도 있었다. 이번 연도 B동 화장실이 개선됨에 따라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 시설을 얻게 되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영대학 교수 연찬회

2018학년도 경영대학 교수 연찬회가 7월 16~18일 사흘간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연찬회에는 김종관 학장, 김진우 부학장을 포함해 총 22명의 교수 및 5명의 교직원들이 참여했다. 연찬회의 목적은 교수 상호 간, 교수 및 직원, 조교 간의 단합을 통한 경영 대학의 발전 및 화합 추구로써, 2018년도 경영 대학 추진 방향 제시 및 미래지향적인 학사 운영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현장 체험을 통한 건강 기능증진 및 지역 문화 이해 증진의 효과가 있었던 이번 연찬회는 앞으로 부산대학교 경영 대학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물함 교체

지난 4월 25~28일 사흘간, 경영 대학 기존 사물함이 노후화로 인해 신규 사물함으로 교체되었다. 이전의 사용자가 자물쇠를 직접 달아야 하는 기본 사물함 형식에 비해 신규 사물함은 비밀번호형 잠금장치가 내제된 사물함으로 변경되어 학우들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기존의 사물함은 1칸을 위아래로 나누어 사용해 사물함 신청 시 이로 인한 불편사항이 많았으나, 변경된 사물함은 기존의 사물함 1개를 2개의 개별 사물함으로 바꾸었다. 여태껏 많은 학우들이 사물함이 2인용인 관계로 지인과 함께 사물함을 신청하기 위해 애먹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교체 공사로 인해 앞으로의 사물함 신청이 매우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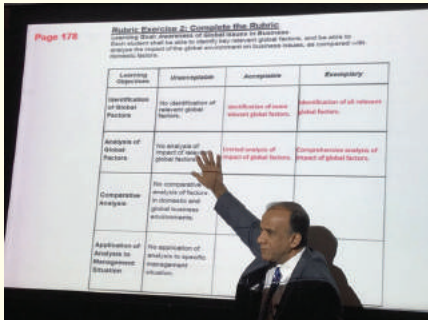
International

국제관련



베트남 국제국립대학교와 협정 갱신

2018년 6월 부산대학교 경영대학과 베트남 국제국립대학교와 협정을 갱신하였다. 베트남 국제국립대학교(Vietnam National University in Ho Chi Minh City)는 영어를 제 1언어로 사용하는 종합 연구 중심 대학이며, 현재 두 종류의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교원 대부분이 우수한 해외 대학을 졸업하였고, 다양한 국제 학생(미국, 독일, 프랑스, 터키 등)을 많이 유치하고 있다. 2018년 4월 협정 만료로 인해 협정을 갱신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부생의 파견 인원을 매년 10명에서 5명으로 변경, 협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 이번 협정의 갱신으로 많은 학생, 교직원의 학술 교류와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의 국제 교류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AACSB 주최 교육 세미나 참석

2018년 6월 24일부터 29일까지 국제경영교육인증협회(AACSB)가 필리핀에서 개최한 교육 세미나에 참석했다. 세미나 기간 동안 Business Accreditation Seminar와 Assurance of Learning Seminar(I)에 참여했다. 세미나에 참여하여 인증취득을 위한 보고서 작성에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계자와의 교류를 도모할 수 있었고 AACSB 인증 취득을 위한 배경정보를 획득하고 정책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인증 획득을 위한 대학 간의 글로벌 파트너십의 기회를 도모하고 인증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를 통해 프로그램이 탄력화될 수 있었다.

제주대학교와 학술 교류 및 협력 협약

2018년 2월 9일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과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은 학술 교류 및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교육 및 연구 분야의 상호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양 기관의 발전과 지역사회를 선도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KOCHAM (미한국상공회의소) 학술 교류 및 협력 협약

2018년 5월 15일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과 KOCHAM(미한국상공회의소)는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긴밀한 교류와 협력으로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본 협약의 체결로 양 기관의 발전과 학생들의 큰 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OKTA LA (LA 한인무역협회)와 인적 교류 및 협력 협약

2018년 5월 10일에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과 OKTA LA (LA 한인무역협회)는 인적 교류 및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본 협약은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생에게 다양한 해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긴밀한 교류와 협력으로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앞으로 이 협정이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학생들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MBA 경영대학원



MBA 50기 신입생 환영회

지난 3월 14일 호텔 농심 대청홀에서 MBA 신입생 환영회가 열렸다. 이날 환영회에서는 경영 대학원 장님, 김종관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교수님과 경영 대학원 학교 관계자분, 그리고 MBA 총동문회, 재학생 및 신입생 여러분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풋풋한 새내기인 50기 신입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각 부서 장기 자랑은 대미를 장식했다. 2018년 신입생들의 입학으로 인해 더욱 활기차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기를 기대하며, 행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원우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인적자원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2018 경영대학원 MBA 한마음 체육대회

지난 5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경암체육관에서 MBA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MBA 49기 안한기 원우회장과 MBA 원우 및 가족 지인 250여 명이 참석해 체력증진과 친목 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개회사와 더불어 2018 MBA 백구대제전으로 막을 연 체육대회는, 점심 식사와 명랑 이벤트 및 화합 한마당, 시상식과 추첨 및 폐회식까지 즐겁고 알찬 행사가 이어졌다. MBA 원우들은 가족 지인과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고 후문을 전했다.

2017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지난 8월 24일 금요일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경영학 석사과정 48기의 17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식에서는 부산대학교 총장, 경영대학원장, 경영대학원 총동문회장 등 여러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48기 원우들이 석사학위패를 전달받았다. 석사 과정을 밟고 졸업하게 되는 모든 원우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사회에 나아가 효원의 위상을 더욱 드높이는 인재가 될 것을 기대한다.

Advanced Management Program
AMP 최고경영자과정



최고경영자과정(AMP) 제68기 입학식

부산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AMP) 제68기의 입학식이 지난 3월 8일 목요일 오후 6시에 상남국제회관 2층 효원홀에서 진행되었다. 입학식을 통해 강권호 외 56명(총 57명)이 입학하였다. 축사는 이영희 AMP총동문회장(㈜금호 대표이사)로 이루어졌다.

최고경영자과정(AMP) 제68기 워크숍

최고경영자과정의 2018년 워크숍이 지난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1박2일 동안 진행되었다. 워크숍은 경주 현대호텔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날은 최병오 패션그룹형지(주) 회장의 특강과 함께 하였으며 둘째 날에는 불국사에서 경주 문화유적 탐방이 진행되어 보람있는 워크숍을 마무리하였다.



최고경영자과정(AMP) 제68기 1학기

종강행사

최고경영자과정의 1학기 과정의 종강을 맞아 1학기 종강행사가 이루어졌다. 장소는 해운대 티파니21에서 진행되었으며 지난 6월 14일 오후 5시에 시작하였다. 선상파티를 주로 하여 즐거운 행사와 함께 1학기 종강을 함께 축하하였다.





2018년도 확대이사회 결과보고

2018년 4월 12일에 부산상대 동문회 확대이사회가 개최되었다. 확대 이사회에서는 강상목 경제통상대 학장을 및 허화 명예교수를 비롯한 교수들, 동문회 임원 및 학생회 간부 등 총 42명이 참석하여 동문회 및 모교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이야기들을 나눴고, 선후배간의 우정을 다지는 정겨운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올해 동문회의 여러 행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는 시간도 가졌다. 상대 동문회는 동문, 교수 및 재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 학창시절 추억을 공유하고, 사업 관련 정보 교류 및 최고의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임을 강조했고, 아낌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제6회 부산상대 총동문회 골프대회

2018년 6월 14일에 통도CC에서 제 6회 부산상대 총동문회 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동문 및 교수를 포함하여 총 20개조가 참석하여 그간 같고 닮은 기량들을 맘껏 뽐냈으며, 이어진 만찬시간에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화합의 장이 마련되었다. 만찬 시간에는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동문들의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동문회에서는 참석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했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개교 72주년 기념 효원가족 등반대회 참가

2018년 5월 20일, 부산대 총동문회가 주관하는 개교 72주년 기념 효원가족 등반대회가 금정산 자락에서 개최되었다. 400여명의 동문들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대 넉넉한 터에 모여 금정산을 오르 고, 산성 다목적 광장에서 다양한 행사로 이어졌다. 이 중 우리 상대 동문회는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하여 최다 참가상을 획득했고, 행사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었다. 등반대회의 분위기도 재학생들과 동문들이 잘 띄워줘서 고맙다는 칭찬의 말을 듣기도 하였다. 최다 참가상으로 받은 상금은 전액 재학생들 격려금으로 지급했으며, 상대 동문회의 선후배가 한 자리에 모여 어우러진 이번 등반대회는 최강의 동문회임을 증명하는 자리였다. 다음 행사에서도 많은 참여를 부탁하며 상대 동문회의 건승을 기원한다.





싱그러운 봄날의
교복데이

경영학과
김나령

경영학과 학우라면 누구나 경영관 앞에서 많은 새내기들이 앓던 얼굴로 교복을 입고 단체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매년 학생회에서는 만우절을 핑계 삼아 교복을 입고 추억을 남기는 교복 데이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봄과 벚꽃과 함께 이번 연도도 역시 지난 4월 2일 교복 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통의 교복 데이 행사이지만 매년 행사 내용이 같지는 않습니다. 재작년에는 포즈의 참신함 혹은 특이한 콘셉트로 사진을 남기는 이벤트가 있었고, 작년에는 지정된 장소에 가서 랜덤 미션을 수행하는 이벤트에 이어 올해는 4개의 포토 스팟에서 미션 사진을 찍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총 4곳의 포토 스팟과 미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셋별 회관 앞에서 검은색을 제외한 통일된 색감의 사진 표현을 할 것, 사회관 잔디밭에서 천지창조 포즈를 따라 할 것, 웅비관 계단에서 영웅을 표현 한 사진을 찍을 것, 대운동장 앞에서 자유 주제로 사진을 찍을 것.

교복이 없는 학우들을 위해 군복과 스쿨룩도 허용되었으며 반별, 팀별, 개별로 나뉘어 시상 이 이루어졌습니다. 부문별 시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별 행사는 인원수와 창의성, 팀별 행사는 미션 수행률과 콘셉트 적합성, 창의성이었으며 개별 행사는 경영관 내에 플라로이드 사진을 전시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에게 영예가 돌아갔습니다. 총 30만 원 상당의 모임비와 애슐리, 치킨, 배스킨라빈스 기프트콘 등 양질의 상품도 얻고, 그리운 학창시절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고, 또한 경영학과 학우들과의 친목을 도모하며 새로운 추억도 남길 수 있었던 값진 행사였습니다.

본 행사는 신입생 뿐 아니라 재학생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번 연도에 참가하지 못해서 아쉬운 학우들이 계시다면 내년 4월 싱그러운 봄날의 교복 데이 행사에 참가해보는 게 어떨까요? 📷



교수·학생 연계

팀 베이스 융합교육·연구

해외 현지조사

경영학과

김윤지



지난 2월, 경영대학의 교수·학생 연계 팀 베이스 융합교육·연구 해외 현지조사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시아 금융, 무역, 물류, 관광, 컨벤션 분야 강대국 탐방을 통한 기업가 정신 고양 및 글로벌 마인드 고취를 목표로 하였다. 또한 글로벌 경영환경에 대한 현지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한 경영지식 함양 및 전략적 문제 해결능력을 향상토록 하였다. 또한 동행한 MBA 경영대학원생(기업인) 선배와의 교류를 통하여 해외 취업, 인턴 및 진출 자문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취업 역량을 강화토록 하였다. 이는 경영대학 학생들의 해외현지조사 참여를 통한 리더십 및 공동체 의식 강화로 글로벌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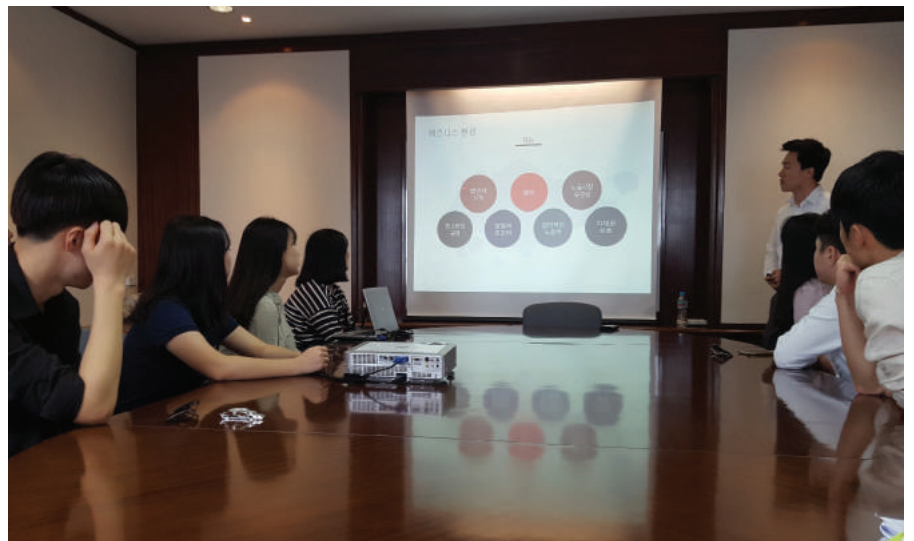
수 인재양성이라는 기대를 가진다. 또한 대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우리대학의 해외 네트워크 기반 마련도 기대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홍콩, 싱가포르에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총 일정 4박 5일 동안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외국대학 교육과정 조사 및 분석, 외국기업 탐방과 해외 취업 전략 개발, 우리대학과의 교류 및 연계 방안 토의로 이루어졌다. 참가자는 총 14명으로 인솔 교수 2명(김종관 학장, 김영희 부교수), 학생멘토 경영대학원 MBA과정생 1명(원우회장), 경영학과 학부생 11명이 포함된다.

참가 학생 모집 일정은 1월 26일부터 31일 동안 접수 진행되었으며 2월 2일 합격자 발표

후, 2월 7일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다.

4박 5일간의 일정은 홍콩과 싱가포르를 오가며 폭넓게 진행되었다. 24일은 홍콩 도착 후 홍콩 대학 교수 초청 간담회 및 문화체험을 하였으며, 25일에는 싱가포르로 이동 후, 싱가포르 대학 방문 및 교수 간담회를 가졌다. 26일에는 싱가포르 대학생들과의 간담회 및 문화체험을 진행하였고 싱가포르 기업체 탐방 및 간담회를 가졌다. 27일에는 홍콩으로 이동 후, 홍콩소재 대학방문 및 교수와의 간담회 진행, 28일에는 부산 귀국 등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





경영학과
김창호 교수

개인적으로는 1981년 9월에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상업교육과에 부임하여 상과대학 경영학과로 이적하여 경영대학 경영학과로 37년의 대학교수 생활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재임 중 'event'를 꼽으라면 첫 번째로 사범대학에서 상과대학으로의 이적일 것입니다. 사범대학 교사의무발령제에서 교사임용제로 전환되면서 상업정보교육과의 폐과로 인해 당시 재학생들 모두가 상과대학 경영학과로 전과하면서 교수들도 함께 상과대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상과대학체제에서 경영학과 단일학과체제인 경영대학으로의 전환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경영학교육인증제도의 실시로 경영학과로서는 인증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단과대학 수준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영학과, 회계학과, 금융공학과 3개 학과가 '경영학과'라는 하나의 단일학과로의 통합노력의 산물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영학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수와 학생이 하나되는 조직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수는 교육과 연구, 학생은 경영학과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의 꿈(dream)인 CEO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영대학의 경쟁력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학생들과의 정기면담에서 학생들의 관심이 공무원 시험, 공기업 취업에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로서는 내심 서운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영관리가 영리조직인 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조직에도 필요함이 오늘날의 추세로 본다면 기업이 정신을 구현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진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진정한 경영학을 배우는 경영학도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경영학도들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도록 합시다. 🇰🇷

경영학도의
정체성을

재확립하자





**OM 전공 신임
이철웅 교수**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의 일원이 되고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의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기계공학과 학사과정을 졸업하고 2002년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을 거쳐 2007년 8월에 박사를 취득하였습니다. 미국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조지아텍)의 School of Public Policy에서 2007-2008년 동안 포스트 닥터 연구원으로 연구하였고,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 하였으며, 2018년 상반기에는 Duke University에서 기술경영 관련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저는 기술경영의 정량분석을 위해서 이산선택모형(discrete choice model), 베이지안 추정(Bayesian estimation), 컨조인트 분석(conjoint analysis)을 중심으로 연구 하였고, 이러한 방법론을 정보통신, 에너지 분야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시장 초기 상태에 있는 신기술의 수요예측으로서 이 분야는 기업의 경영전략 등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저는 과거 데이터가 거의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기술의 수요예측을 위해서 베이지안 방법을 이용하여 정확한 예측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외에도 저의 연구 관심 분야는 지속가능 경영, 기술사업화, 파급효과 분석 등이 있습니다.

이론 중심의 교육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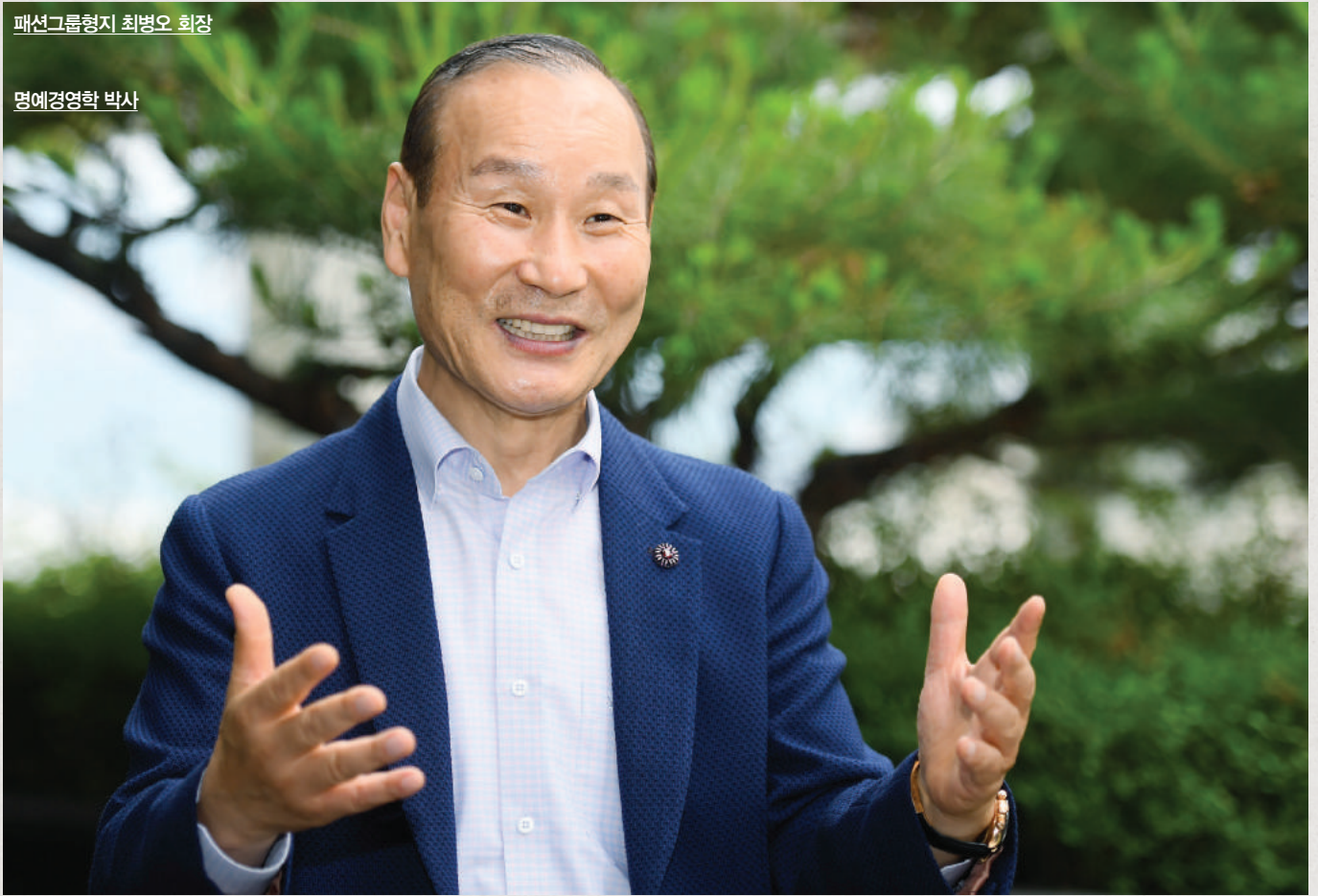
문제 해결 능력
중심의 교육이 필요

앞으로 4차 혁명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식 정보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기존의 교육 방식으로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존의 이론 중심의 교육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 중심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익숙해 왔던 정답이 있는 문제를 푸는 방식보다는 정답이 없는 문제를 더 많이 풀어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해 내는 능력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지난 10년간 저의 필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졸업생들이 지역사회, 국가에 기여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부산대인이 되도록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



패션그룹형지 최병오 회장

명예경영학 박사



‘두번째 스무살’을 돌려준 부산대

출향기업인으로
명예경영학 박사...

영광의 한편
무거운 책임감

1. 어떻게 부산대, 그 중에 경영대학에 큰 관심과 후원을 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제 고향은 부산입니다. 부산대학교는 고향을 대표하는 국립대학만큼 젊은 시절 대학에 가지 못한 저로서는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경영대학이야말로 기업인들을 지속 배출하는 인재양성소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경영대학에서 새로운 식견과 인연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부족하지만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 인연을 보면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60기를 수료하였고,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대 경영대학원 AMP 총동창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존경하는 분들과 인연을 이어갈 수 있었고 부산대에 대한 자부심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올해 초, 부산대에서 경영학 명예박사를 영등하는 영예를 안았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영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2.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신 것은 서울 광장시장에서의 작은 소매점이었는데, 지금의 패션그룹형지를 일궈 내신 원동력이나 경영 철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의류사업을 시작한 후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옷에 대한 스트레스를 없애드리고 싶다’는 단 하나의 신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스펙이나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평생 남보



다 반의 반 걸음만 먼저' 하겠다는 자세로 살아왔습니다.

또한 1970년대 고향 부산 국제시장에서 페인트가게를 할 때부터 브랜드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동대문 광장시장에서 여성 바지 사업을 하면서 '브랜드'의 중요성을 알고 여러 시도를 했습니다. 1980년대 동대문 시장에서는 브랜드, 상표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발상으로 시장 제품이지만 상표등록을 해 제품마다 태그(tag)와 품질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등 남과 작게라도 다르려는 노력으로 변창했습니다.

한 번의 부도를 겪고 재기를 결심했을 때에도 백화점의 고급 브랜드와 값싼 시장 제품으로 양분화된 중장년 여성복에서 블루오션을 찾아 '크로커다일레이디'를 론칭하며 본격적인 브랜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브랜드 사업은 지금의 패션그룹형지가 자리잡기까지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크로커다일레이디를 시작으로 샤프렌, 올리비아하슬러 등을 잇따라 론칭하며 중장년 여성복 시장에서 성공한 뒤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브랜드 M&A 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했습니다. 예작, 에스콰이어, 엘리트 등 한국의 토종 헤리티지를 지닌 국내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인수하였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옷 입는 행복을 전한다'는 한결 같은 철학이 매출 1조원대의 23개 브랜드 2,300여개의 매장의 1조 규모의 기업을 일궈냈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글로벌 패션 리더'라는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또 다른 기회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2016년 인수한 프랑스 브랜드 '까스텔바작'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기반으로 최근 글로벌 합자법인 설립, 중국 및 대만 등 아시아 시장 진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부도 등 위기를 맞았으나 포기하지 않고 현재의 패션그룹형지 성공을 이끄셨는데 취업의 길을 걷는 학생들에게 위기 극복에 대해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일근천하무난사(一勤天下無難事)', 한결같이 부지런히 일하면 세상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 청년들에게 위기나 시련을 겪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부지런히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설 것을 당부합니다. 기회는 날아가는 새와 같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되겠습니다. 이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알아야겠습니다.

또한 매경한고발청향(梅經寒苦發清香), 매화는 추위의 고통을 이겨내고 맑은 향기를 풍긴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고통과 역경을 이겨내면 더욱 건실해지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회사의 부도로 위기를 맞았지만 불 같이 다시 일어나 재기의 기회를 적극 찾아 나섰습니다. 불꽃처럼 다시 일어난다는 의미로 '불꽃 형(燐)', '터 지(址)'를 사용해 사명을 '형지'라고 정하고, 재 스스로 희망을 찾아 다부진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학생, 소상공인, CEO 등을 대상으로 강연을 합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한 300여회에 이르는데 기업가로서는 적지 않은 횟수입니다. 홀수저론이 득세하는 시대에 역경과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노하우에 대하여 밝히면서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 희망전도사로서 임무를 다하는 것이 제 소명이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고향인 부산 하단에 만든 서부산 유일의 라이프스타일 쇼핑몰 아트몰링.





4. 고향인 부산 서부권의 문화시설을 확충하고자 아트몰링을 건립하셨습니다. 부산의 도시 문화와 관련하여 아트몰링의 의의는 무엇인가요.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위치한 라이프스타일 쇼핑몰 ‘아트몰링(ARTMALLING)’ 부산본점은 현재 서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쇼핑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고향 부산을 떠나 상경한 후, 어릴적 뛰어 놀던 고향 땅에 무엇인가 돌려드려야겠다는 염원을 실현하고자 하단동에 쇼핑몰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작고하신 선친께서 사업을 하시던 곳이라 더욱 뜻깊습니다. 이곳 하단 부지를 15여년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땅을 매입하여 쇼핑몰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트몰링이 생기기 전에는 이곳에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역민들의 원인이었던 영화관을 포함한 편안한 문화와 쇼핑의 공간으로 100미터 높이에 1만8천여평의 규모로 지난 2017년 3월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쇼핑몰 곳곳에는 지역민을 위한 문화 콘텐츠가 녹아있습니다.

사하구 하단동의 유일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CGV 아트몰링점’은 패션기업의 원사, 봉제 등 섬유 제조를 모티브로 한 독특한 인테리어로 지역의 명소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건물 옥상 야외에는 ‘아트가든’을 두고 서부산의 전경을 누릴 수 있는 힐링공간을 만들어 연주회, 소규모 영화상영 등을 운영 중입니다. 쇼핑몰 내 문화전시공간 ‘B/O42(Birth Of Origin 42의 약자)’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문화시설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트몰링은 현재 170여개 입점 브랜드 판매직 및 쇼핑몰 운영관리에 1천여명을 채용했는데 95% 가량이 부산 시민입니다. 부산 사하구청과 사하구민 우선 채용 협약식을 맺기도 했고, 사하구 소재 동아대학교에서 아트몰링 채용박람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트몰링은 서부산을 넘어 남부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5. 한국소비자포럼이 주최하는 2018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패션그룹형지의 대표 브랜드들이 수상했다고 들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선정하는 행사에서 수상을 이루어낸 관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7월 열린 ‘2018 올해의 브랜드 대상(한국소비자포럼 주최)’에서 크로커다일레이디가 ‘여성캐주얼’ 부문 15년 연속 수상, 샤트렌이 ‘여성의류’ 부문 11년 연속 수상, 예작이 ‘남성셔츠’ 부문을 신규 수상했습니다.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가 각 분야별 최고의 브랜드를 온라인 투표하는 방식으로 선정하는 만큼 수상의 의미가 남다릅니다. 패션그룹형지의 수상 브랜드들은 오랜 세월 각 고유의 헤리티지를 지닌 만큼 소비자들의 굳건한 신뢰를 얻으며 국내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크로커다일레이디와 샤트렌은 4050 여성들을 위한 실용적인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 여성복 1위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헤리티지를 지키되 최근 BI(Brand Identity), SI(Store Identity) 등 대대적인 리뉴얼과 함께 젊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는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비자 투표에서도 젊은 연령대의 득표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생활밀착형 유통 구조, 인기 주말드라마 제작지원, 다양한 참여행사 확대로 고객과

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남성셔츠 '예작' 역시 38년 역사의 국내 토종 브랜드로 단단한 소비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타일 아티스트를 표방하며 셔츠 하나만으로도 스타일링이 가능한 디자인을 선보였고, 한국인의 체형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핏과 패턴으로 오랜 세월 고객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6. 마지막 질문으로 최병오 회장님께 부산대 경영대학이란?

부산대 경영대학은 저에게 '두번째 스무살을 돌려준 학교'입니다. 20대에 가정 사정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였는데, 60이 넘는 나이에 김종관 학장님을 비롯한 훌륭한 교수님을 만나 뵙게 해주었고, 여러 교우 분들을 통해 학창 시절 못지 않은 활동을 하면서 다시 청춘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할까요. 앞으로 경영대학과의 인연을 통해 정보와 지식뿐 아니라 경영인으로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다양한 분야의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분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부산대 경영대학이 앞으로도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월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은 부산대에서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현대건설기계 공기영 사장

경영 81학번



해외시장에서 미래를 찾다

실패하는 것 보다
더 나쁜 것은

시도도 하지 않는 사람

현대 건설 기계의 올해 매출 목표는 3조300억원 이상이다. 서류상으로는 3조2834억원이다. 2년 전에 비해 1조원 이상 늘어난 목표이다. 이러한 공격적인 목표 책정은 작년의 성공적인 성과가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 건설 기계의 야심찬 행보의 중심에는 공기영 사장이 있다. 그는 부산대학교 경영대학 81학번으로 경영학과를 나오신 선배님이다. 현재 현대건설기계의 주 전망은 해외 시장, 그 중 신흥국이다. 현재 베트남, 미얀마, 러시아 등 9개 국가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발 맞추어 스마트 중장비로 승부수를 두고 있다. 이처럼 현대건설기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훌륭한 리더인 공기영 사장과 인터뷰를 통해 후배들에게 전할 조언을 전달한다.

Q1) 부산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선배님의 이야기를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현재의 경영학과 청춘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같은 대학, 같은 건물에서 공부하셨을 선배님의 대학 시절 모습은 어떤 학생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선배님께서 생각하시는 선배님의 대학 시절은 어떠하셨나요? 혹시 대학 생활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하나 부탁드립니다.

부산대 경영학과를 선택한 동기는 부산대 경영학과와 브랜드 가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어떤 해에는 서울대학교 다음으로 행정고시에 많이 합격할 정도로 우수한 대학이었기 때문에 저 또한 행정 고시를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선택을 했는데 4년 동안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1학년 때는 경영학과 반 대표, 2학년에는 씨클 회장, 3-4학년에는 학군단 (ROTC) 장교 후보생 간부로서 School Activity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행정 고시 도전은 포기해야 했지만 이러한 교내 활동이 오히려 저에게 큰 자산이 된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Q2) 대학교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떤 것이 가장 하고 싶으신가요?

대학 생활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만약 대학 시절로 다시 한 번 돌아간다면 경영학과 외의 인문학, 사회학, 정치학, 제2의 외국어 등 좀 더 다양한 교양 함양과 나 자신의 Value를 올릴 수 있는 과목들을 이수해 보고 싶습니다.

Q3) 현재 선배님은 현대건설기계의 대표이사직에 있으시며 기업을 훌륭한 미래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선배님께서 직장을 결정하시게 된 계기를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서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저의 꿈은 CEO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CEO의 꿈이 너무 강렬해서 저의 모든 행동 양식을 거기에 맞추고 생활을 해 왔습니다. 심지어 저의 개인 이메일 주소가 “kongCEO”였을 정도입니다. 자신의 꿈을 말로서만 되풀이 한다면 그것은 허풍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강렬하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하면서 점점 꿈을 실현하는 쪽으로 본인 이 fitting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고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현대 중공업에 희망해서 입사했고 지금까지도 현대 중공업 그룹의 가족인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Q4) 선배님의 지난 인터뷰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의 무대는 세계다”라고 하실 정도로 해외 시장에 주력해야함을 강조하셨으며, 또한 해외 시장 공략을 전략으로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자원이 한정된 대한민국은 수출로서 먹고 사는 나라이고 현대건설기계도 80%를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우리의 무대가 세계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갈수록 치열해 지는 지구촌 경쟁 속에서 살아 남고 지속적인 발전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탄탄한 제품 경쟁력

과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회사의 유통망 (딜러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중국, 브라질, 인도에 생산 기지가 있으며 전 세계에 수백 개의 딜러가 우리를 대신해서 장비를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전장에서 적들과 더욱 잘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잘 지원하고 경쟁력을 높여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품질 향상, 원가 경쟁력, After Service, Training 등을 통하여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하루 하루를 전쟁속에서 살아 가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Q5) 사내 임직원과 ‘점심미팅’을 종종 하시며 조직분위기를 중요시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선배님의 생각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대부분의 경영학과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소 “사원/대리급 사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라면 그 조직은 성공한 조직이라는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모토는 “우문현답” 즉,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젊은 직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지향하고 항상 현장 (생산 현장, 영업 현장 등등)에 답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젊은 직원들과 편한 마음으로 점심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회사의 비전과 CEO의 철학을 공유하는 시간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반응 또한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Q6) 선배님의 현재 목표로 하는 것이나 꿈, 혹은 차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인지요?

저희 회사는 작년에 현대중공업에서 독립회사로 분리하면서 2023년 까지 매출 7조원 달성으로 Global Top 5 회사로 성장을 목표를 설정하여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꿈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모두 쏟아 부을 예정입니다.

Q7) 선배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혹은 선배님께서 바라는 인재상이 있으시다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현재 선배님과 비슷한 길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재상 중에서 “Self Motivated” 된 인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수동적인 사람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더 귀중하다고 믿습니다. “실패하는 것 보다 더 나쁜 것은 시도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학은 기본입니다. 영어와 중국어는 꼭 유창한 수준까지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펙보다는 실무 능력 중심으로 채용 패턴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바로 써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얘지요. 타겟을 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의 직무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13학번 김기한이라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IBK기업은행 공채에 합격해서 8월부터 부전동 지점에서 근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회원 경영에 글을 쓸 수 있어서 영광이고, 한편으로는 제가 자격이 되나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글을 통해 IBK기업은행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김기한
IBK기업은행

99%의 준비가
있어야

결국
언젠가 1%의 기회를
붙잡는다

1. IBK기업은행에 합격하기까지 준비하신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기소개서, 필기 시험 공부, 면접 후기 등으로 나눠서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처음에 은행만 꼭 노리고 취업 준비를 했던 건 아니었어요. 2~3학년 때에는 막연히 금융권에서 일하면 좋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융과 관련된 동아리나 대외활동들을 하나 둘 해가면서 은행이라는 직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IBK기업은행만 꼭 골라서 지원을 하게 되었네요.

제가 은행에서 일하게 된 가장 큰 계기들을 꼽아보자면 학술 동아리(F&M), 신한은행 홍보대사, 그리고 IBK기업은행 인턴 활동을 들 수 있겠습니다. 2~3학년 때 학술 동아리 활동으로 경제나 시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부할 수 있었고, 신한은행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서 은행에서 하는 일, 사람들을 대하는 일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IBK기업은행 인턴 경험은 은행원이라는 직업이 나에게 잘 맞는지, 그리고 IBK기업은행의 문화는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구요.

IBK기업은행 공채 과정은 자기소개서를 통한 서류 심사, 필기 시험, 1차 합숙 면접, 최종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에는 위에 언급한 활동들에서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썼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적부심사라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지는 않았습다. 하지만 최종면접에서도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쓰거나 나도 기억 못할 내용을 써서는 안되겠죠.

필기 시험은 100문제 중에 경제, 시사 상식 30문제, NCS 기반 70문제가 나왔습니다. 경제 시사는 동아리 활동과 시사 스터디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NCS 기반 문제들은 개인마다 체감난이도 편차가 커서 명확한 공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시험을 치기 두 달 정도 전부터 꾸준히 문제를 풀어보면서 감을 익히는 연습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합숙 면접은 IBK기업은행 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13~4명이 한 조로 면접을 보는데 첫 날에는 팀 체육활동, 팀 PT, 협상면접을 보고 두 번째 날에는 개인 별로 창의력, 마인드 맵, 인성 면접을 본답니다. 저는 필기 합격 이후 면접 스터디에서 면접 전형 별로 반복 연습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혼자 연습할 수 없는 면접 전형이 많아서 스터디를 꾸려서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준비하는 것을 강력 추천 드립니다.

최종 면접은 10명 씩 들어가서 봤는데 한 명 당 4~5개의 질문을 받았습다.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을 주로 물어보고 가끔씩 사회적 이슈(양심적 병역거부, 대북 경제협력 등)에 대한 자기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최종 면접에서는 너무 긴장하지 않고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최종까지 갈 정도면 모두 경쟁력이 있는 지원자기 때문에 자신감 갖고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는 게 좋게 보일 것 같습니다.



2. 기업은행의 근무 환경이나 회사 생활은 어떠신가요? 현재 말고 계신 업무나 회사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근무 환경, 업무량, 분위기는 지점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순수하게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의견입니다.

아직 일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가족 같은 면이 많이 있는 직장인 것 같습니다. 은행원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친절함을 겸비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도 있겠구요. 제가 근무하는 부전동 지점 동료 분들은 다들 정말 좋은 분들이라 저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은행 업무는 크게 수신, 여신 업무로 나뉘는데 저는 수신 업무를 맡고 있고 앞으로는 가게 여신 쪽으로 일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통장 개설부터 공과금 납부, 각종 제신고, 카드 관련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업무의 폭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앞으로 배워야 할 일들이 훨씬 많아요. 선배님들 말씀이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하시네요.

근무 환경을 얘기해보자면 확실히 업무 강도는 강한 편인 것 같습니다. 업무 시간 중에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거든요. 그래도 업무 시간은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특히 주 52시간 근무를 넘어 주 40시간 근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장벽이 있지만 앞으로 근무환경이 조금씩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직원들을 위한 복지도 잘 갖춰놓은 직장입니다. 육아나 휴가, 학업에 대한 배려가 많은 편이에요. 물론 저는 아직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이 활용해보진 못했습니다만, 이것 저것 회사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이 다양합니다. 근무나 복지에 대한 부분은 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취업을 준비하는 부산대 경영대학 학우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정말 올해 운이 많이 따라줬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취업수기를 통해 IBK기업은행에 대해 소개할 기회도 얻게 되었구요. 이 수기를 읽는 학우분들 중에서 저보다 객관적으로 훨씬 훌륭한 능력을 갖추고 잠재력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준비 방법에 대해 조언을 드리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혹시라도 취업 준비 과정에서 자신감을 잃거나 지치신 분들이 있다면 격려의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99%의 준비를 하신 분들은 결국 언젠가 1%의 기회를 붙잡아서 좋은 결과를 내시더라고요. 곧 빛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만 잃지 않으시면 정말 목표를 달성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2학년 학우 분들은 다양한 것들을 건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한 활동들 하나하나가 퍼즐조각처럼 맞춰지면서 '나'라는 큰 그림을 완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퍼즐 조각들 색깔이 다채로우면 더 예쁜 색깔이 나올 수 있겠죠!

제가 만난 대부분의 경영대학 학우 분들은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었고 저 역시 학우분들에게 배운 게 정말 많아요. 그렇게 때문에 우리 학우 분들이 앞으로 정말 잘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새 학기 경영대학 학우 분들 모두 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기업은행 관련이나 궁금한 점들이 있으신 분은 qseget1@naver.com 으로 메일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영학과 13학번 박준기입니다.

2018년 부산교통공사에 지난 두 달간 하계 현장실습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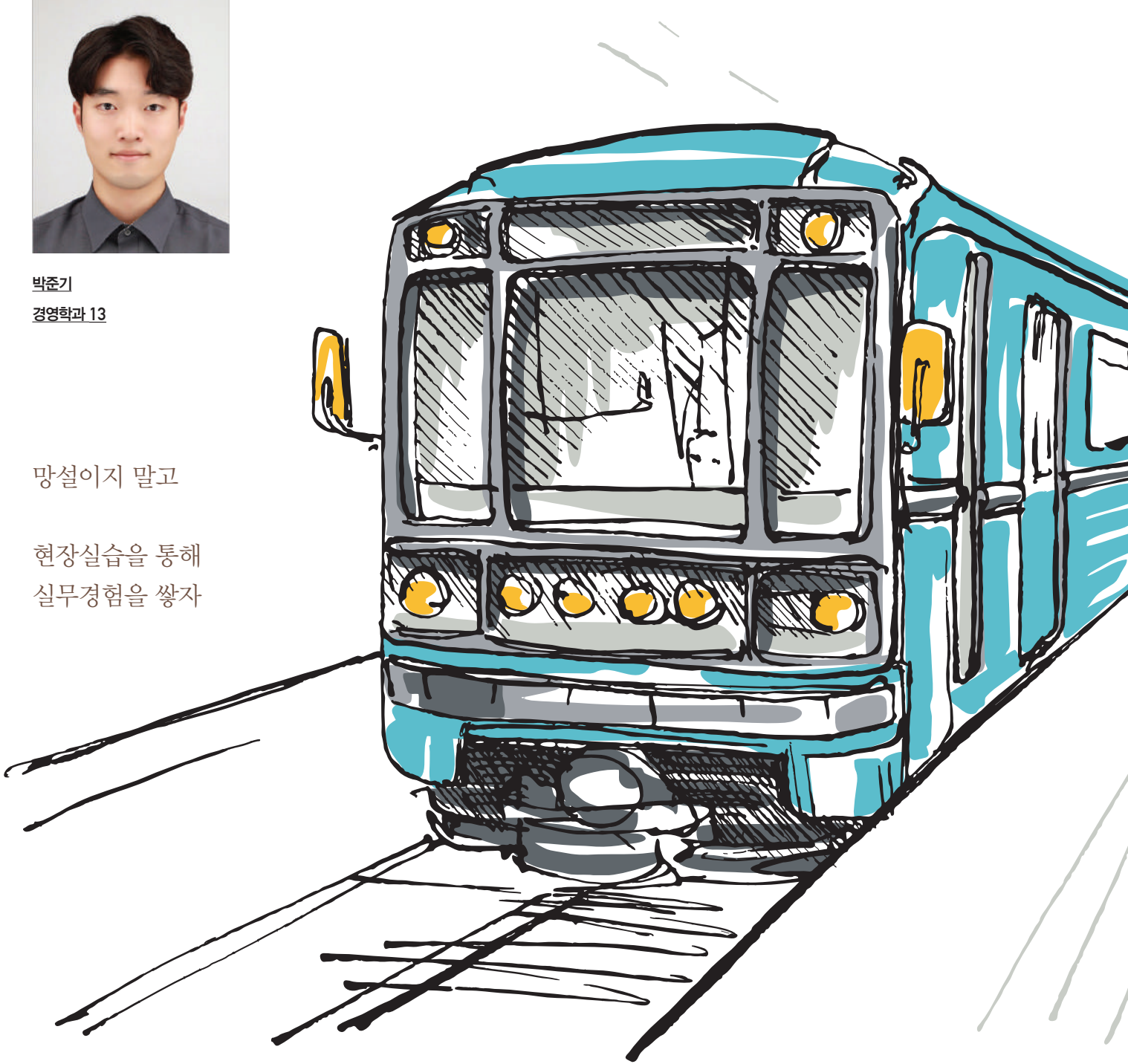


박준기

경영학과 13

망설이지 말고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자





1. 학교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주시겠어요?

현장실습 신청은 placement.pusan.ac.kr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실습은 보통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나뉘집니다. 실습 지원 방법으로는 먼저, 기업들이 참여 기업 모집기간에 등록을 합니다. 모집기간이 끝나면 사이트에서 참여기업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자신이 원하는 기업을 정하고 그에 알맞는 현장실습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사진, 자격증 등과 같은 간단한 인적 사항 작성 후 지원동기, 관심분야, 교내 외 활동 및 경력, 성격의 장단점, 좌우명 5가지의 자기소개서를 각각 500자 이내로 작성 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이 끝나면, 참여학생 모집기간에 원하는 기업을 찾아 신청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기업에 따라 신청서만으로 선정하는 곳과 신청서와 면접을 기반으로 선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의 경우는 신청서로만 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페이지 지원현황에서 선발여부에 '선발' 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선발이 된 것입니다.

2. 부산교통공사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 느낀 근무 환경이나 생활은 어떠셨는지요?

출근은 9시 퇴근은 보통 6시에 했습니다. 지하철을 운영하는 회사라 지하철은 실습 기간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문화가 남아있어서 긴 바지에 단정한 옷을 입고 출근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점심을 사줘서 점심값은 일체 들지 않았습니다. 회식이 잦지는 않았지만, 실습 시작할 때, 끝날 때 두 번 했습니다. 학생이지만 부장님도 '~씨' 를 붙여 존칭을 써주실 정도로 배려를 많이 해 주셨으며, 업무가 없을 때는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3. 실습 당시 맡은 업무나 회사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주실 수 있나요?

경영업무를 담당하는 소통복지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저희 팀은 소통지원팀으로 의전활동과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지원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저는 멘토의 주 업무인 기록물관리를 도왔습니다. 과거 자료가 필요한 직원이 있으면 자료를 찾아서 대여해주고 다시 반납 받는 일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새로 교체된 식당 비품에 바코드 붙이기, 복날 수박 지원하기 등 부서 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4. 현장실습에 대해 만족하시는지? 현장실습을 준비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부산대 경영대학 학우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만족합니다. 다른 기업 현장실습은 잘 모르겠으나, 부산교통공사에서 현장실습을 하면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신 분이라면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인턴을 지원했는데, 무슨 경험을 했는지 물어보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난감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실습을 통해서 학점과 실습비도 받고 실무 경험을 쌓아 취직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가능한 빨리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영 발전기금 사용목적

장학기금 _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장학금 지원

- 최우수 장학생 : 전국순위(0.5%) 이내의 최우수 인재
- 우수 장학생 : 전국순위(2%) 이내의 우수 인재
- 국제교류 장학생 : 우수학생 해외연수 지원 및 교환학생 지원

CPA수험생지원 _ 공인회계사 배출을 위한 장학금 지원

- 방학기간 전국 유명강사 초청 교육 프로그램 운영
- CPA 준비생의 24시간 학습공간 확보를 위한 교육환경정비
- CPA 1차/2차 합격자에 대한 학생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원

학술연구기금 _ 교수의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 SSCI 최우수 논문포상 : 세계 우수 논문지 게재 논문
- 세계적 석학 초빙 사업 : 연구와 교육을 위한 세계적 석학 초빙

국제교류기금 _ 글로벌화를 위한 학생교류와 외국인 교수 유치

- 외국인 교수 확보사업 : 전공 영어강의 확대와 외국인 교수 초빙
- 국제학술대회 : 연구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학술대회 지원

국제경영교육인증(AACBS)기금 _ 경영학 교육시스템 확립

- 글로벌 기준의 경영학교육의 국제인증 필요
- 경영학교육 기반확충에 2011년부터 5년 소요

대학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기금 _

각종 대학운영개선과 건물 및 첨단 강의시설 확충

- 대학운영개선기금 : 대학 장기발전을 위한 운영 개선
- 경영대학원 전용건물 건설 : 경영전문대학원의 연구동 등 전용건물
- 첨단강의시설 : 멀티미디어 강의실, 교육기자재 등 첨단강의시설확보

경영 발전기금 출연방법

경영발전기금

경영 1인 1계좌 갖기운동 · CPA 1인 1계좌 갖기 운동

경영 등록금 한번 더 내기 기금

경영 특별목적기금

목적성 축적기금



기금 출연자에게 대한 예우

법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 감면 혜택)

미리내클럽(100만원 이상) 예우

학교홍보물 우송 / 부산대학병원 할인

문비클럽(1,000만원 이상) 추가 예우

- 출연자명 본관 벽면 각인 보존 / 도서관 이용증(열람, 대출) / 차량 무상 출입 등록(1대)
- 평생교육원 수강료 30% 할인(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 국제언어교육원 수강료 30% 할인(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 대학만찬 등 학교행사 초청(연 1회) / 청남 오제봉 선생 서예 병풍 증정(3,000만원 이상)

금정클럽(1억원 이상)추가 예우

감사패 증정(총장)

문창클럽(5억원 이상)추가 예우

명의 건물명 헌정 또는 흉상, 부조상, 공덕비 건립(4중 택1)

효원클럽(50억원 이상)추가 예우

부산대학교병원 VIP 평생무료진료권 증정

상과대학 · 경영대학원 발전기금

1993년 3월~2010년 8월 (단위 : 천원)

금정클럽(1억원 이상)

김종갑	100,000
-----	---------

웅비클럽(1,000만원 이상) 추가 예우

노대섭		48,000	강판수	(주)청강 대표	48,000
김일곤	경제학과 교수	30,000	구자용		30,000
노선호	풍경정화(주) 대표	30,000	이상일		30,000
권청길	월드하우징 대표	30,000	이원태	(주)경일통상 대표	30,000
이근철	(주)삼정 대표	30,000	김승영	(주)금영 대표	30,000
우한호	(주)피앤에이 대표	30,000	조관승	회계사	30,000
이상환	세기아케마 대표	30,000	최종열	경영대학 교수	30,000
김영주	유창중건설 회장	30,000	손영태	(주)케이씨 대표	30,000
구자봉	(주)미래파크 대표	20,000	정판덕	새부산관광 대표	20,000
김종태	대표	20,000	이장생	(주)아남약품 대표	20,000
김태홍	(주)정관 대표	20,000	박태복	(주)티비카본 대표	20,000
최신형		18,000	최춘식	AMP동창회장	18,000
오명열		17,500			

미리내클럽(100만원 이상)

김정호	(주)경국 대표	5,000	방수한	AMP52 대표	2,000
김일우	브릿지증권 지점장	3,500	김영식	AMP골프회장	1,000
이정상	보생 대표	3,000	안태원	(주)한아 대표	1,000
박수만	웅진건설(주) 대표	2,500	김상철	시티엔지니어 대표	1,000
황보석기	AMP50 대표	2,500	임정덕	경제학부 교수	1,000
박용득	웅진건설 대표	2,500	송창년	대광닛볼(주) 대표	1,000
류 열	일신산업 대표	2,000	장지환	성도회계 이사장	1,000
이재술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2,000	곽선화	경영대학 교수	2,500
이해주	경제학 명예교수	2,000	김태혁	경영대학 교수	1,386
최정환	우성식품 대표	2,000	지성권	경영대학 교수	1,500
박철병	성도회계 이사장	2,000			

등록금 한번 더 내기

교원				동문			
최종열	1,500	김호범	1,500	김형우	1,500	김은홍	2,000
황규선	5,000	신종국	1,500	조헌제	1,500	옥치장	2,000
곽선화	1,500	방호열	1,500	정윤재	1,500	박기순	1,500
김창수	1,500	김진욱	1,500	김지완	4,500	정계섭	1,500
문병근	1,500	이갑수	1,500	권혁태	2,000	김형진	1,500
하충룡	1,500	강원진	2,000				
이균봉	1,500						

DEVELOPMENT FUND

경영대학 발전기금

단체출연

최고경영자과정(AMP) 12~27기 약 400,000							
33기	27,000	43기	35,000	50기	24,500	57기	26,000
36기	23,500	44기	23,000	51기	29,500	경맥 75동기	10,000
37기	29,500	45기	32,500	52기	21,500	전문경영자 2, 3기	10,000
39기	30,500	46기	23,000	53기	29,000	MBA 37기	2,500
40기	27,500	47기	34,000	54기	17,500		
41기	35,000	48기	29,500	55기	26,500		
42기	26,500	49기	29,500	56기	14,000		

기관 출연

부산발전연구원	원장 김일곤 임정덕	38,500
(재)울산발전연구원	원장 서근태	29,000
농협 부산대지점	지점장 전동배 김부근 김동현 각 15,000	45,000

마라톤 후원금(33,269)

구자봉	MBA 34기~40기 김태곤 등 22여명	10,000
이병걸	AMP 45기~54기 박종명 등 80여명	1,000
(주)신화사	TECHNO-MBA 1기~3기 권오중 등 24명	1,000

매월 자동이체

김유일	10만원 (2008년 6월부터)
-----	-------------------

경영대학(경영학부) 발전기금 출범 이후

경영학부는 2008년 6월부터 '부산대학교 발전기금'에 경영학부 발전기금을 독자적으로 조성하여 왔으며, 대학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경영대학 발전기금으로 확대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다. 경영대학으로 독립한 후 경영대학 발전기금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전기금 조성대상을 AMP과정만이 아니라 MBA과정과 경영학부를 졸업한 동문 및 일반 지역 유지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경영대학 출범 후 경영대학의 발전기금을 출연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경영 1인 1계좌 갖기 운동 CPA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더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많은 동문들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금정클럽(1억원 이상)

정준수	경영대학 명예교수	100,000인(경영인산장학기금으로 출연)
-----	-----------	-------------------------

응비클럽(1,000만원 이상) 추가 예우

김성자	베델농산 대표	10,000	전상우	MBA 43기	10,000
김유일	경영대학 교수	10,000	신종국	경영대학 교수	10,000
안 승	AMP 208대 총동창회장	10,000	김종관	경영대학 교수	10,000
최종열	경영대학 교수	10,000	2012 MBA 원우회		10,270
주영찬	APM 60기	10,000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10,000
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회장	23,882	강병춘	금오기전	11,000
AMP 총동문회		30,000	변종문	상대동문	5,000

미리내클럽(100만원 이상)

손영태	(주)케이씨	8,000
문성옥	용원개발 대표	5,000
김경희	AMP 59기	5,000
송미란	MBA 41기	5,000
박철병	성도회계법인 대표	5,000
장지환	성도회계법인 대표이사	5,000
강종민	한창엔지니어링 대표	5,000
MBA 44기 원우회		5,000
부산대 상대 동문 교수회		4,000
김정교	경영대학 교수	3,000
이상래	AMP 59기	3,000
민병권	AMP 59기	3,000
정희자	MBA 41기	2,000
손 인	MBA 동문회장	2,000
조규성	MBA 42기	2,000
김영순	교직원	2,000
세무법인 WE동래		1,290
황건호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장	1,000
채창호	MBA 42기	1,000
김재오	AMP 59기	1,000
배근호	AMP 59기	1,000
정동순	MBA 41기	1,000
문병혁	MBA 41기	1,000
이우영	경영사 상무이사	1,000
손영표	MINDSYSTEM 대표	1,000
김대철	AMP 55기	1,000
조강래	AMP 55기	1,000
이우식	AMP 55기	1,000

진병수	AMP 55기	1,000
김용오	AMP 55기	1,000
김영식	MBA 42기	1,000
김동률	MBA 42기	1,000
박미현	MBA 42기	1,000
양길석	MBA 42기	1,000
윤성차	MBA 42기	1,000
조비송	MBA 42기	1,000
노사관계전문과과정5기		2,300
최윤영	MBA 42기	1,000
곽지영	MBA 43기	1,000
김영이	MBA 43기	1,000
김승태	MBA 43기	1,000
김종범	MBA 43기	1,000
김창완	MBA 43기	1,000
류제민	MBA 43기	1,000
박기원	MBA 43기	1,000
박동익	MBA 43기	1,000
안지홍	MBA 43기	1,000
이 인	MBA 43기	1,000
이제용	MBA 43기	1,000
이창규	MBA 43기	1,000
강민권	거림베스트	1,000
권란희		1,000
김현우		1,000
최민호		1,000
송태호	경영대학 교수	1,500

소액기부자(100만원 이하)

김종세	MBA 42기	500
전경준	MBA 44기	500
김정석	MBA 45기	500
박미숙	MBA 43기	300
이균봉	경영대학 교수	200
문화준	MBA 42기	200
권춘오	MBA 44기	500
김민수	MBA 44기	300
김범석	MBA 44기	200
김부미	MBA 44기	300
김준우	MBA 44기	500
김현준	MBA 44기	300
문주상	MBA 44기	300
박기호	MBA 44기	500
신민화	MBA 44기	300
신영섭	MBA 44기	200
유용준	MBA 44기	300

윤미라	MBA 44기	300
이기만	MBA 44기	500
이상부	MBA 44기	500
이완범	MBA 44기	300
이채성	MBA 44기	300
이현욱	MBA 44기	500
정명진	MBA 44기	500
조현진	MBA 44기	300
진순미	MBA 44기	200
채현식	MBA 44기	300
최정진	MBA 44기	300
홍승표	MBA 44기	300
홍정혜	MBA 44기	500
황경선	MBA 44기	500
정대교	MBA 44기	500
Techno-MBA	10기동문	500

DEVELOPMENT FUND

경영대학 발전기금

경영1인 1계좌 - 1계좌는 매월 1만원씩 자동이체로 불입(계좌수)

교수				동문			
강상훈(3)	이찬호(1)	엄철준(3)	김정교(1)	김홍근(1)	전상우(10)	최해관(2)	이동은(1)
고광수(5)	최수형(1)	장활식(1)	송태호(5)	손인(10)	정광택(5)	전경준(2)	박정일(3)
김유일(10)	김종기(1)	최종열(10)		김일우(3)	박윤봉(5)	김강수(1)	전우철(1)
김창호(1)	김진우(3)	김기석(1)		김형석(2)	강정훈(5)	곽지영(5)	김진영(2)
홍태호(3)	육기울(3)	이균봉(1)		이종훈(1)	김두성(5)	김정열(5)	진은경(3)
김동일(1)	조영복(3)	이장우(3)		이진호(2)	김승태(5)	반태옥(5)	
김명종(1)	곽춘종(1)	최종서(3)		한미영(2)	박인규(2)	오상진(1)	
김진옥(1)	서문식(3)	최상문(3)		김상철(2)	박기원(1)	이재훈(3)	

CPA 1인 1계좌 - 1계좌는 매월 1만원씩 자동이체로 불입(계좌수)

삼일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남일회계법인
이병찬(10)	구태우(3)	김병선(1)	문병현(1)	이지희(1)	김희학(5)	김동휘(3)
정민수(5)	오상표(3)	홍영표(1)	박진호(1)	정원호(1)	박일환(3)	장호일(3)
조정환(3)	정동수(3)	강병욱(1)	성유득(1)	조아라(1)	공경태(1)	조용환(1)
성낙필(3)	허재혁(3)	권한수(1)	이상후(1)	천정봉(1)		
공병진(3)	최정미(1)	김도균(1)	이주식(1)	허태원(1)	성도회계법인	동원회계법인
진은경(1)	김민희(1)	강현태(1)	김영수(1)	이광희(1)	박근서(10)	나용주(1)
손정화(1)	김정동(1)	박상욱(1)	이동계(1)	이웅기(1)	예상우(5)	강명근(1)

경영대학 발전후원회 지원

박은주	(주)엘큐어	18,000	부산대 AMP 총동문회		10,000
박창수	(주)씨에스터	12,000	김홍식	MBA 46기	300
부산상대 동문		20,049	배현열	MBA 46기	300
MBA 45기 원우회		10,000	김보연	MBA 46기	200
전상우	두산인프라코어(주)	5,000	오형록	MBA 46기	200
김종현	(주)펠리테크	3,000	조민숙	MBA 46기	200
효원회		1,000	김영조	MBA 46기	200
김태명	(주)케이시에스	2,000	허용숙	MBA 46기	200
최태은	SKC(주)	2,000	홍성화	MBA 46기	200
박상용	MBA 44기	500	이희영	MBA 46기	200
배건우	MBA 45기	800	박성인	MBA 46기	200
김명수	MBA 45기	200	박석은	MBA 46기	200
김경래	MBA 45기	200	한종달	MBA 46기	200
김 석	MBA 45기	200	강봉수	MBA 46기	200
김 직	MBA 45기	200	MBA 46기 원우회		10,000
전인수	MBA 45기	500	MBA 47기 원우회		10,000
채진호	MBA 45기	200	박숙진	MBA 46기	1,000
함란화	MBA 45기	200	이강호	MBA 46기	500
김도형	MBA 45기	200	이 석	MBA 46기	1,000
최종서	경영대학장, AMP 64-65기	30,000	MBA 48기 원우회		10,000
배병수	MBA 45기	200	윤종진	MBA 47기	3,000
정회근	MBA 45기	200	상대동문회		5,000
오승주	MBA 45기	200	조영복	경영대학장, AMP 66-67기	15,000
이종현	MBA 45기	200	양일상	상과대학 총동문회장	500

단체출연

최고경영자과정(AMP)							
58기	15,000	61기	46,000	64기	50,000	67기	50,000
59기	25,000	62기	23,000	65기	60,000		
60기	30,000	63기	40,000	66기	50,000		

현물기부

임동찬	AMP 61기	인터넷강의 수강권 300매 (4,500만원상당), 토익교재 250권(300만원 상당)
-----	---------	---

2012 사랑의 김장 담그기 후원

AMP					
강병중	넥센월석문화재단	10,000	이관길	AMP 총동창회 회장	2,000
최병오	패션그룹 형지	10,000	조성제	원광종합건설	5,000
이영희	금호	10,000	AMP 62기		3,000

MBA					
손 인	하나인치과병원	10,000	박기호	세광산업	300
전상우	두산인프라코어 부산	10,000	류제민	메트라이프생명	50
강병춘	금오기전	10,000	지대연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50
경석희	OB	500	홍승표	로이드선급협회 아시아	30
옥미화	송원식품	300			

교수				동문		
강상훈	230	서문식	230	옥석재	100	김보두 부산상대 동창회 회장 500
고광수	230	엄철준	230	최종열	1,000	
김진우	230	옥기울	230			

재능기부					
조광포토피아	사진촬영	창미사	현수막	만수출판사	전단지



경영대학 소식지 <효원경영>은 여러분의 원고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경영학과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학과 조교

이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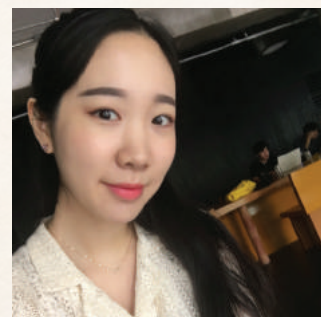
sjhg29@gmail.com

지난 효원경영을 마무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가을이 오고 효원경영 15호 발간을 하게 되었네요. 지난 호에는 제가 마무리작업만 하게 되어 이번 15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자단 학생들과 함께한 첫 소식지라 할 수 있는데요. 지난 호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많이 보완하고 보다 알찬 내용들로 채울 수 있도록 우리 기자단 학생들이 많이 힘써주었으니 경영관 건물 내 곳곳에 비치된 효원경영 소식지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소식지는 2년간 최고참 기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온 강민재 학생의 마지막 작품이라 더 의미 있는 소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호에는 기자단으로서가 아닌 취업 수기로 실려 효원경영 독자들에게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재 학생뿐만 아니라 방학과 학기 중 학업 외에도 바쁜 일정으로 효원경영 작업하기 많이 힘들었을 텐데 열정과 애사로 열심히 참여해 준 나령학생과 윤지학생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효원경영을 통해 맺은 작은 인연이 오래오래 가길 희망합니다. 이번 호 제작에 도움을 주신 김종관 학장님, 김창호 교수님, 이철용 교수님, 그리고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칼럼을 써주신 동문 여러분 및 경영학과 학생들 그리고 우리대학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인사 올립니다. 다음 호에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 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학과 조교 이수지

편집자로서 효원 경영에 두 번째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 참여에 비해 더 쉽게 주제를 선정하는 등 아직 부족하지만 조금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호 역시 효원인 여러분께 경영대학의 새로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효원 경영 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이수지 선생님과 학장님, 편집자님, 민재 오빠와 윤지에게 감사합니다. 효원인 여러분도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경영학과 15 김나령



경영학과 15

김나령

joobwbw@naver.com

무덥던 여름이 무색하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왔습니다. 이번 효원경영 15호도 좋은 내용들로 채울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이번 호 편집을 하는데 많이 고생해주신 수지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나령이, 윤지에게도 고마움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영대학 학우들을 위해 글을 투고해준 기한이, 준기 덕분에 알찬 효원경영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이번 효원경영 기자단이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섭섭하고 벌써 대학 생활이 끝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해서 좋은 모습으로 효원경영을 찾고 싶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동안 기자단 생활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고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효원경영을 응원하겠습니다. 경영대학 그리고 효원경영 모두 화이팅입니다! 경영학과 13 강민재



경영학과 13

강민재

kmj8495@gmail.com



경영학과 16

김윤지

blanche9@maver.com

영 물러가지 않을 것 같던 무더위도 어느덧 점점 줄어가고, 이제는 제법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방학 동안 3학년 여름방학을 나름 대로는 각지로 여행을 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하며, 다채로운 것을 느끼며 배우며 보낸 것 같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효원 경영도 한 몫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경영대학을 졸업하신 훌륭한 선배님과의 연락, 경영대학의 팀베이스 교육 조사 등 다양한 경험치를 쌓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14호를 거쳐 두 번째 편집이라 저번 보다는 확실히 허둥지둥 대던 면이 줄어든 것 같으나 아직도 일을 하며 부족한 부분들이 많음을 깨달으며 이번 호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에게는 효원경영을 통해 이수지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멘토링도 하며 선배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얻은 것이 참 많습니다. 돌아보았을 때 정말 감사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저의 대학생 나날을 더욱 더 가치있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호가 학생들 뿐만 아니라 닿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영대학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경영학과 16 김윤지

